

高麗時代 墓誌銘 新例

-元瓘墓誌銘-

金 成 煥

1. 머리말
2. 묘지의 현황과 「묘지발견기」
3. 묘지의 내용
4. 묘지명을 통해 본 원관의 행력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기본으로 몇몇 금석문 및 고문서, 그리고 불교 관련 복장유물 등이 고작이다. 이러한 자료의 미비가 이 시대의 연구에 한계와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에 개인 묘지명을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고, 김용선의 수년간 작업인 『고려묘지명집성』으로⁽¹⁾ 고려시대의 묘지명 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가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고려시대 묘지명이 간혹 새로 발견되고 있어 그 수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기서 소개하려는 「元瓘墓誌銘」 역시 그 여중 하나이다. 특히 원관은 원 간섭기 초기 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충열왕과 충선왕의 왕위 다툼의 와중에서 관직생활을 했던 사람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가계가 아버지 傅와 아들 忠으로 이어져 다른 가문들과 함께 고려 후기 사회를 주도하던 권문세족중 하나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새로 발견된 「원관묘지명」을 소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의 행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묘지명의 원문 판독 등 필자 능력의 한계로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정을 빈다.

(1) 김용선 편저 1993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 묘지의 현황과 「묘지발견기」

「원관묘지명」은 2000년 2월 1일 원주원씨 종중으로부터 경기도박물관에 기탁된 자료이다. 원씨종중에 의하면, 그의 묘소는 비무장지대인 長湍 金洞岬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중기까지 실전되어 오다가 1670년(현종 11) 현재의 墓誌가 묘역 부근에서 발견됨으로써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때 발견된 묘지의 내용을 토대로 宋時烈이 지은 비문을 토역에 세우고, 묘지는 다시 땅속에 묻어 잊혀지고 있다가 1997년 3월 사초작업중에 다시 발견됨에 따라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묘지는 발견 당시 정지작업중이던 포크레인에 의해 두동강이 나서 보관되어 오다가 1999년 4월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수리되었다. 그러나 묘지의 재질이 돌의 결에 따라 쉽게 부스러지는 점판암 계통인데다 발견 당시의 훼손 및 이후의 보관상태가 좋지 못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

묘지의 크기는 112×58×5cm이고 24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서체의 글씨를 음각하였고 1행의 글자는 64자를 기본으로 하였다. 1글자의 字經은 가로 1~1.5cm× 세로 1.2~1.5cm이다. 묘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1행은 묘지 주인공을 밝혀놓은 題額과 그 밑에 書者를 음각하였고, 2행은 묘지명의 찬자를 밝혀 놓았다. 3·4행은 묘지 주인공의 본관·성명, 그리고 증조부터 조·부로 이어지는 가계와 모계를 기록하였고, 5행부터 14행까지는 관력을 중심으로 한 이력을, 15행부터 18행 중단까지는 致仕 이후 불교에의 관심을 기록하였으며, 18행 중단부터 21행 중단까지는 죽음과 후계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 21행 중단부터 22행까지는 장례 사실과 찬자가 묘지명을 짓게 된 이유를 기록하였고 23·24행은 주인공을 기리는 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송시열이 짓고 沈益顯이 쓴 「원관신도비문」⁽²⁾에는 1670년 묘지가 발견되었을 때, 그 경위와 묘지의 현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2) 『원주원씨족보』에 그 명칭이 「匡端大夫僉議贊成事府君諱璠神道碑文」이라고 되어 있으나, 묘지의 발견 경위와 그 현황, 그리고 송시열이 비문을 짓게 된 연유를 기록하고 있어 신도비문이기 보다는 墓誌發見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후 『원주원씨족보』는 「족보」로 약칭한다.

에 따르면, 원관의 묘소는 실전되어 오다가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우연히 묘지를 발견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사람들이 묘지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자 13대손 舜弼이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되찾아 다시 매장하였다고 한다. 또 묘지가 발견됨으로써 묘소에 대한 송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은 원씨종중의 士諱 등 54명, 외손 李尙鎭과 閔鼎重 등 74명, 모두 128명으로 이 송사를 통해 묘소를 되찾은 것으로 짐작된다.

송시열이 판독한 「원관묘지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묘지의 글자는 모두 1291자로 원씨의 가계에 대한 내용이 119자, 원관의 性行과 이력에 대한 내용이 837자, 혼인과 후계에 대한 내용이 309자, 묘지명 찬자에 대한 내용이 26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송시열이 판독할 때에도 이미 性행과 이력 부분에서 24자, 혼인과 후계 부분에서 13자 등 모두 37자를 판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³⁾ 이것을 현재의 상태와 비교할 때 당시 묘지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송시열이 지은 「묘지발견기」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匡靖大夫僉議贊成事府君神道碑文

崇禎庚戌有金姓人發古墓於長湍金洞里有誌石焉間有剝缺而其餘皆可讀其標題曰僉議贊成事元藎墓誌其序有云公諱瓘字遐翁原州人也本名貞以姓名與上國年號相同故改之曾祖左司諫知製誥諱承胤祖追封樞密院副使諱璿父金紫光祿大夫守太傅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判兵部事諱文純公諱博母峰城郡大夫人麻氏禮賓卿諱守藏之長女字古名宰相信若之孫也凡一百十九字其下歷敘公性行履歷以至七十卒八百三十七字而所缺又二十四字又其下有三百九字敘三娶子壻然後終之以銘而所缺又十三字末行書重大匡檢校僉議政丞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驪興君閔漬撰二十六字今以此參之國史及家乘公生於宋理宗淳祐七年丁未景定四年癸亥公年十七而爲江華判官元忽必烈三年丙寅及第其庚午陪文純公從高麗元宗如元其後以宰相子有才能再入丁亥文純卒公自元東還乙未元改元元貞公遂改名戊申十月公享王于壽寧宮丙辰六月公卒矣其初配知僉議府事判三司事洪祿適女無育繼娶同知密直事典理判書致仕郭汝弼女其女適管軍萬戶成均祭酒金承用未娶左承旨金信女其長男曰忠通憲大夫密直副使上護軍次其名缺不可考女長適西原水軍萬戶保勝護軍朴居實次適同知密直司事民部典書閔頌季適右思補知制教金光徹閔典書曾孫爲我太宗元敬王后克生聖子寔爲我東方堯舜也摠而論之公蓋服勞君親以至大官然頗留意外典豈習俗使然耶按麗史公諱從水史是本朝世祖時所修容或有訛誤歟今去公世五百年所子孫不知墳墓所在今以金之發出得以封植如舊豈公盛德克獲神人之助耶朱夫子蓋嘗

(3) 「원관신도비문」(『족보』 및 아리의 비문 내용 참조).

有先墓之訟有謝過先墓之文今元氏適與之相符其亦奇哉今就訟者本宗元士喆等五十四人
外裔李議政尙鎮閔議政鼎重兄弟凡七十四人名公巨卿多與其中今十四代孫 漢介於國舅
驪陽府院君閔維重來請曰子亦公之孺甥遂不敢辭而敘次如右

崇禎昭陽六淵獻三月日

原任大匡韓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領 經筵事致仕宋時烈述

綏祿大夫青平尉沈益顯謹書

當初誌石既出而旋爲人所秘公十三代孫舜弼貧不能自存聞之慨然驚動求之靡有餘力准人
事之窮然後始得焉豈所謂神寶桐汝孝斯有終者歟茲事甚奇故追錄焉

3. 묘지의 내용

「원관묘지명」은 그와 과거에 함께 급제한 閔瀆가 지었다.⁽⁴⁾ 묘지명을 지을 당시 민지의 관직은 重大匡 檢校僉議政丞 右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 驪興君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는 그의 나이 78세인 1325년(충숙왕 12)으로 묘지의 제작연대를 짐작케 한다.⁽⁵⁾ 묘지는 1997년 발견 당시에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발견 직후 그 원문을 옮겨 적었다는 『죽보』에 실린 묘지명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 이에 필자가 묘지의 현재 상태를 판독한 결과와 『죽보』에 실려있는 원문, 그리고 『고려사』 등의 자료 및 「元傅墓誌銘」·「元忠墓誌銘」 등을 토대로 복원한 묘지명의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⁷⁾

1 僉議贊成(事)⁽⁸⁾ (元)公(墓)(誌)(銘)(并)(序)

□

□

書

(4) 민지가 원관과 同榜이었음은 그가 묘지명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書者의 경우는 판독하기 어렵다.

(5) 민지에 대해서는 민헌구 1987 「민지와 이제현」 『이병도구순기념논총』 및 1996 「민지」 『한국사서단강좌』 19 일조각 : 변동명 1991 「정가신과 민지의 사서편찬활동과 그 경향」 『역사학보』 130 참조

(6) 『죽보』 권 4 「匡靖大夫僉議贊成事府君墓誌銘并序」.

(7) 「元傅墓誌銘」 및 「元忠墓誌銘」 등의 자료는 김용선의 판독 결과(김용선 편저 위의 책 398-400쪽 및 495-496쪽)를 참조하였다. 또 『죽보』에는 묘지의 내용이 행간의 구분없이 실려 있다.

(8) ()안의 글자는 『죽보』에 실려있는 「匡靖大夫僉議贊成事府君墓誌銘并序」를 참고하였다. 이후 별도의 주는 생략한다.

- 2 重大匡(檢)校僉議政丞右文館大提學監
春(秋)(館)(事)躡(興)君(閔) 漬 撰
- 3 公諱瓘字退(翁)原州人也(本)名(貞)以姓名皆與 上國年号相同(以)改之曾祖左
司諫知制誥諱承(胤)祖追封樞密院副使⁽⁹⁾諱璿(父)(金)(紫)光祿大夫守大⁽¹⁰⁾傅門下侍
郎(同)
- 4 中書門下平章事修(文)(殿)大⁽¹¹⁾學士監修(國)史判兵部事諡文純公諱傅⁽¹²⁾母峰城
(郡)(大)夫人廉氏禮(賓)□(卿)⁽¹³⁾守(臧)⁽¹⁴⁾之長女即中古名(宰)相信若(之)(孫)也□⁽¹⁵⁾
(生)(而)穎悟外祖知
- 5 必(爲)□□(親)(自)撫養及長以門蔭始(仕) 元(宗)四年癸亥(蔭)補知江華郡判
(官)(政)滿又爲(寫)經院判(官)(元)(宗)(七)(年)丙寅以(弱)冠擢丙(科)(轉)(國)(學)
學錄歷⁽¹⁶⁾(海)□府錄事典(元)
- 6 (宗)(十)(己)巳⁽¹⁷⁾遷掖庭內寺伯是(年)(冬)(十)二⁽¹⁸⁾月 元正朝 (本)國文純公
以副樞 (扈)(駕)故公(亦)扶侍嚴(君)(而)(兼)掌 行宮⁽¹⁹⁾班祿及 駕還加詹事府丞
未幾拜監察御史⁽²⁰⁾歷
- 7 (官)(至)(太)(傅)少尹出爲濟州牧副使(政)有(威)(惠)(翌)(年) 國家以宰相子
有才幹者十餘人入侍 (天)(朝)(稱)(爲)弓箭陪于時冢⁽²¹⁾宰之子大將(軍)金忻爲其首
公□⁽²²⁾以相子爲副
- 8 □是(時)超拜朝議大夫秘書尹世子中允(丁)(亥)以父喪還服(閔)(起)(爲)正獻⁽²³⁾
大夫典法判書文(翰)(學)(士)知詹事府事戊子以秋官群(謗)(忽)起公亦不免投閑(一)年
己丑復起
- 9 爲正獻⁽²⁴⁾(大)(夫)判禮賓寺事寶文閣學士知制誥庚寅哈丹(賊)(暴)起於隣境將入
(我)(疆)(賊)勢甚盛其鋒不可當故 國家方卷入江華以避之以公爲本京留守万户公於

(9) 「원부묘지명」에는璿이 禮賓卿에 追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죽보』에는 '太'로 기록되어 있다.

(11) 위와 같음.

(12) 『죽보』에는 '諱'·'傅'2자가 누락되어 있다.

(13) 『죽보』에는 '禮賓卿'으로 기록하고 있다.

(14) 「원부묘지명」에는 '廉守臧'으로 기록되어 있다.

(15) 『죽보』에서는 누락 글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6) 『죽보』에는 '歷'자가 누락되어 있다.

(17) 『죽보』에는 "元宗十年己巳"로 기록되어 있다.

(18) 『죽보』에는 '一'로 기록되어 있다.

(19) 『죽보』에는 '行官'으로 기록되어 있다.

(20) 『죽보』에는 '使'로 기록되어 있다.

(21) 『죽보』에는 '寵'으로 기록되어 있다.

(22) 『죽보』에는 누락되어 있다.

(23) 『죽보』에는 '憲'으로 기록되어 있다.

(24) 이어 가오

10 是時國因忘軀⁽²⁵⁾臨難不懼盡忠竭力遂使城闕闕舍雖(經)(賊)(火)而晏然如舊 上甚嘉(之)特(授)(版)(圖)(判)書以賞之癸巳冬

11 世祖皇帝詔令本國⁽²⁶⁾備東征戰艦 上分遣(大)(官)(之)(諸)道以公爲西海道⁽²⁷⁾指(揮)使公於是克勤夙(夜)不日督成六(十)(餘)(艘) 朝野稱其能東征事雖寢猶以爲官船歲取其

12 稅而⁽²⁸⁾爲(國)(用)(其)利之判于今者不少⁽²⁹⁾甲午拜奉翊大夫(三)司使⁽³⁰⁾(文)(翰)學(士)承旨丙申授(密)(直)(學)(士)累知⁽³¹⁾密直司事版圖判書因舍弟同(知)密直司事卿之婚媾家生事

13 故公亦被疑而見斥由是杜門不出但以琴書自娛⁽³²⁾(耳)(越)大德十一年丁未□⁽³³⁾(王)(親)政之初(起)(公)爲匡靖大夫都僉議侍郎贊成事高議都僉議事戊(申)(改)授僉議中

14 護行民部典書領典儀(等)事(已)酉又改爲密直司使⁽³⁴⁾仍⁽³⁵⁾兼民部典書復參機密(以)(公)以滿盈爲懼當急(流)(而)(勇)(退) 上(亦)重違其志以匡靖大夫僉議贊成事進賢館大

15 (提)(學)(副)摠副⁽³⁶⁾事致仕庚戌大夫人卽世公於是歲(年)踰耳順鬢髮盡白復加縞(素)(殫)(力)(送)終國人咸嘉母之壽(子)之孝焉自是歸誠 三寶懋爲追福城北⁽³⁷⁾九⁽³⁸⁾龍山⁽³⁹⁾舍⁽⁴⁰⁾那

16 寺僧⁽⁴¹⁾□□□□□□年既久頽廢亦多公於是(彌)發(重)新之⁽⁴²⁾(願)(未)(及)(薨)(年)(金)(碧)(輪)(魚)(之)(觀)供 佛齋僧之具有加於前古又於江浙⁽⁴³⁾之

(25) 『족보』에는 “爲國忘躬”으로 기록되어 있다.

(26) 『족보』에는 ‘東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27) 『족보』에는 ‘海西道’로 기록되어 있다.

(28) 『족보』에는 ‘而’가 누락되어 있다.

(29) 『족보』에는 ‘小’로 기록되어 있다.

(30) 『족보』에는 ‘事’로 기록되어 있다.

(31) 『족보』에는 ‘至’로 기록되어 있다.

(32) 『족보』에는 ‘誤’로 기록되어 있다.

(33) 『족보』에는 누락되어 있다.

(34) 『족보』에는 ‘事’로 기록되어 있다.

(35) 『족보』에는 ‘因’으로 기록되어 있다.

(36) 『족보』에는 ‘部’로 기록되어 있다.

(37) 『족보』에는 판독할 수 없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

(38) 『족보』에는 ‘五’로 기록되어 있다.

(39) 『족보』에는 ‘山’이 누락되어 있다.

(40) 『족보』에는 ‘舍’으로 기록되어 있다.

(41) 『족보』에는 판독할 수 없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

(42) 『족보』에는 누락되어 있다.

(43) 『족보』에는 ‘浙江’으로 기록되어 있다.

(地)卽成大藏經一(部)(入)安于杭

17 州惠因寺之□(實)爲万世寶并買納□(田)□藏⁽⁴⁴⁾□白(祭)十(五)□(者)以爲遯(年)(田)(藏)(之)(費)(立)石以壽其傳(江)(南)(道)俗莫不詠歌聯成大軸以送之及今延祐三(年)(丙)(辰)首夏

18 又殫所蓄(寫)(成)(銀)(字)華嚴經三(譯)一部日夜催迫如有及(到)(就)(筆)(於)(季)夏中(公)(始)得微疾至二十六日(卒)于私第享年七十公先娶知僉議府事判三司事⁽⁴⁵⁾洪祿適⁽⁴⁶⁾之⁽⁴⁷⁾女

19 (無)嗣而(卒)中娶同知密直司事典理判(書)致仕郭汝弼之女生(一)(男)一(女)(而)(一)(男)則未冠而⁽⁴⁸⁾夭女適官軍万户(成)(均)(祭)(酒)金(承)(用)先公而歿後娶(左)承旨金信之女生二

20 男三女長曰忠□□通憲⁽⁴⁹⁾大夫密直副使上護軍次曰□亦先逝女長(適)(西)(原)(水)軍万(戶)□□⁽⁵⁰⁾(衛)(保)(勝)護軍(朴)居(實)次適同知密直司事(民)部典書閔順次適右息(補)知

21 製教(金)(光)(轍)以是年□⁽⁵¹⁾九月初四(日)(行)葬(于)(長)湍縣之⁽⁵²⁾(金)(洞)(子)壻等具公之行(狀)屬予⁽⁵³⁾爲(銘)□⁽⁵⁴⁾(予)(老)(病)久廢□□□□辭避公與予爲同榜故不能獲已粗(記)(其)略而

22 爲之(銘)(曰)

23 □□先公東韓柱石 (公)(實)鳳雛一朝五色 (顯)□中華盡忠(祀)(稷) (黑)頭拜(相)民懷其德 知(其)恩盈引退閑適 晚年樂善(竭)(盡)(其)力 (願)(殺)□□(重)(新)

24 (金)(碧) (卍)(藏)□□(名)(傳)異滅 畢竟所營⁽⁵⁵⁾大經三譯 青猪銀泥字(重)(和)(璧) (餘)慶不窮勝功又積 所自⁽⁵⁶⁾逍遙天堂極樂 遺及子孫清風黃閣

(44) 『족보』에는 판독할 수 없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

(45) 『족보』에는 '事'가 누락되어 있다.

(46) 『족보』에는 '道'로 기록되어 있다.

(47) 『족보』에는 '之'가 누락되어 있다.

(48) 『족보』에는 '而'가 누락되어 있다.

(49) 「원충묘지명」 참조.

(50) 『족보』에는 4자를 판독할 수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1) 『족보』에는 탈락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2) 『족보』에는 '之'가 누락되어 있다.

(53) 『족보』에는 '余'로 기록되어 있다.

(54) 『족보』에는 누락되어 있다.

(55) 『족보』에는 '榮'으로 기록되어 있다.

(56) 『족보』에는 판독할 수 없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

4. 묘지명을 통해본 원관의 행력

원관은 1247년(고종 34) 태어났다. 본래의 이름은 貞이고 자는 退翁이었으나, 49세 때인 1295년(충렬왕 21) 원이 연호를 元貞으로 개원하자⁽⁵⁷⁾ 성명이 모두 원의 연호와 같아 이름을 瓘으로 고쳤다. 증조는 좌사간 지제고를 지낸 承胤이고 조는 추밀원부사로 추봉된 瓘, 부는 문하시랑을 지낸 문순공 傅이며, 어머니는 中古에⁽⁵⁸⁾ 이름난 제상인 廉信若의 손녀이자 예빈□경을 지낸 守藏의 딸인 峰城郡大夫人 염씨이다.⁽⁵⁹⁾ 즉 그는 문하시랑 원부와 봉성군대부인 서원염씨 사이의 3남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참고로 원부를 중심으로 원주원씨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원주원씨는 고려전기부터 꾸준히 관인을 배출하였으나, 무인집권기에 들어서 가세가 쇠퇴하였다. 그러나 무인정권의 붕괴와 왕정복고에 적극 가담한 원부가 재추에 오르면서 가세를 신장시키고 이후 그의 아들 瓘·珩·卿과 그 손자 忠·善之 및 증손 松壽 등이 지속적으로 재추급의 관인으로 진출하면서 고려후기 세족으로 등장하였다.⁽⁶⁰⁾

(57) 『고려사』 권 31 충렬왕 20년 12월 신축.

(58) 「원관묘지명」에 보이는 중고의 용례는 원 간섭기에 들어서 당대를 이전의 사회와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사류층들의 시대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사례로 추측코자 한다. 이외의 중고에 대한 용례는 「洪奎墓誌銘」과 「李德孫妻庾氏墓誌銘」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용선 편저 앞의 책 433-436쪽 「홍규묘지명」 및 457-458쪽 「이덕손처유씨묘지명」). 원 간섭기 사류층의 중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별고 「高麗時代 中古의 認識과 圖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59) 원부는 염수장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은 瓘과 卿, 사위로 左中禁指諭 郎將 金興齋를 두었다(『고려사』 권 107 열전 20 元傅 및 「원부묘지명」). 그러나 충렬왕 때 동지밀직사사를 지낸 珩 역시 그의 아들인 것으로 짐작된다(『고려사』 권 31 충렬왕 23년 윤 12월 을축 “以元珩同知密直司事 元卿副知密直司事”).

(60) 원주원씨가 고려후기 세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광철 1991 『고려후기세족층연구』 동아대출판부 80쪽 참조. 한편 이와는 달리 인종 때 국자제주를 지낸 沆을 중심으로 冠(追封太子詹事)·文氏(長淵)→沆(國子祭酒)·宋氏→燾(靈州通判)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열의 원주원씨를 확인할 수 있다(김용선 편저 앞의 책 108-109쪽 「원항묘지명」). 하지만 이 계열이 원관의 선대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원관은 고려 후기 원주원씨가 세족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 傅의 출세를 토대로 동생 翬·卿과 함께 자신의 대에 이르러 세족으로써의 위치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 후기 세족이 문벌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데 있어 관인의 배출못지 않게 세족층간의 혼인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⁶¹⁾ 그 자신이 당대의 권문세족이었던 청주곽씨·경주김씨 등과 혼인을 하고 있음은 이때 원주원씨가 세족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민지가 지은 그의 묘지명은 첫머리의 증조 承胤→조 璠→부 傅로 이어지는 先系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관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致仕한 후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며, 세 번째는 후계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역시 민지가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 토대를 중심으로 그의 행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관인으로서의 행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가 대부분의 관직생활을 했던 충렬왕 때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때의 정국상황이 관인으로서의 그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원 세조의 부마로서 전적으로 그 힘에 의지하여 왕위에 오른 충렬왕은 즉위 초기 왕권의 확립을 위해 원의 간섭과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이점은 고려의 재추·관료 역시 마찬가지여서 충렬왕 초기 이 부분에 있어서 양자의 결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충렬왕은 즉위 직후부터 자신이 태자로 원에 있을 때 시종하던 怯冷口·鷹坊·內僚·宦官·譯官 등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측근세력을 육성하였다.⁽⁶²⁾ 이에 충렬왕은 점차 측근세력의 지위를 강화시켜 관료층을 붕괴시켜 갔고, 충렬왕의 측근 정치라는 현실에 직면한 재추·관료들은 그들의 현실적 기반인 가문의 배경·관직의 고하 등에 따라 그 반응을 서로 달리하여 국왕측근세력에 적극 대항하는 경우와 이에 의탁하여 동화되는 경우, 그리고 이들의 존재 및 성장

(61) 김광철 1996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78쪽.

(62) 이익주 1938 「고려 충렬왕대 정치상황과 정치세력의 성격」 『한국사론』 18 서울대 극사학과 168-187쪽.

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현실적인 위치 등을 기반으로 타협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었다.⁽⁶³⁾ 이중 원주원씨의 경우는 세 번째의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1295년 8월 충선왕의 집권과 1298년 즉위, 같은해 8월 다시 충열왕의 복위, 1307년(충열왕 33) 충선왕의 재집권과 1309년의 복위 등 원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정치상황은 모든 관료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을 것이다.⁽⁶⁴⁾ 이런 점이 유의하면서 관인으로서의 그의 행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묘지명에 의하면, 원관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외조인 염수장으로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외가의 일정한 영향아래 성장하였고, 관로 진출 후 출세에도 외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케 한다.⁽⁶⁵⁾ 이후 그가 관직에 나간 것은 17세 때인 1263년(원종 4)으로, 이때 그는 문음으로 知江華郡判官을 배수하였고, 임기가 만료되자 寫經院判官으로 옮겼다. 그리고 20세 때인 1266년(원종 7) 자공자 洪縉과 동지공거 郭汝益이 주관한 과거에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한 후⁽⁶⁶⁾ 국학학록을 제수하였고, 이후 海□府錄事를 역임하였다. 1269년(원종 10)에는 掖庭內寺伯으로 옮겼다가 그해 12월 원에 正朝하기 위해 아버지 부가 추밀원부사로서⁽⁶⁷⁾ 扈駕하게 되자 行宮班祿을 兼掌하며 함께 수행하였다.⁽⁶⁸⁾ 특히 이때는 원종의 복위를 위해 원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던 세자 謙이 자신의 측근세력을 모으던 시기로, 원관 역시 이때

(63) 이익주 위의 논문 208-219쪽.

(64) 이에 대해서는 이익주 1993 「충선왕 즉위년(1298) 관제개편의 성격」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참조.

(65) 이에 대해서는 원부가 한때 許瑛·洪子藩 등과 해도로 유배될 뻔 했으나 충열왕의 폐행이었던 외생질 廉承益의 도움으로 모면하고 있다는 점을(『고려사』 권 105 열전 20 元傳) 그가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추측하고 있는 김광철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김광철 1991 위의 책 80쪽).

(66) 이때의 과거에서는 민지를 비롯한 27명과 明經 1명, 恩賜 2명을 선발하였다(『고려사』 권 73 지 27 선거 1 원종 7년 5월). 또 이때 그와 함께 과거에 합격한 同榜으로 譚濱·洪侃·禹天錫 등을 확인할 수 있다(박용운 1990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429쪽).

(67) 『고려사』 권 26 원종 10년 12월 갑진.

(68) 이때는 원이 힘을 빌려 林衍에 의해 폐위된 원종을 복위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되던 시기로, 이에 대해서는 강정원 1995 「원종대의 권력구조와 정국의 변화」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98-103쪽 참조.

충렬왕과 접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후 그 인연은 그의 관료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에서 돌아와서는 詹事府丞을 거쳐 監察御史를 배수하였고 그후 몇몇 관직을 역임하고 太傅少尹에 이르렀다. 외직으로는 淸州牧副使를 지냈는데, 위엄과 유순함으로 민정을 돌보았다고 한다.

충렬왕 때의 官歷으로 처음 기록되어 있는 것은 1279년(충렬왕 5) 弓箭陪에 선발되어 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이다. 즉 이때 고려에서는 원에 일시케 하기 위해 재상의 아들중 재간이 있는 사람 10여인을 弓箭陪로 선발하였는데, 총재의 아들로써 대장군 金忻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는 재상의 아들로써 副首가 되어 원에 가면서 朝議大夫 秘書尹 世子中允을 超拜하였다. 이것은 『고려사』의 帶方公 徽을 대표로 金忻과 원관을 포함하여 朴恒의 아들 元滋·許珙의 아들 評·洪子藩의 아들 順·韓康의 아들 射奇·薛公儉의 아들 之神·李尊庇의 아들 璠·金周鼎의 아들 深 등 25인을 선발, 3등급의 관직을 승차하여 禿魯花로 보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⁹⁾ 이것은 독로화의 조건을 강화하드로써 고려의 재추들을 견제하려고 한 원의 목적과 원의 적극적인 후원을 배경으로 왕권을 수립하기 위한 충렬왕의 의도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조치로, 그 선발대상에는 모든 재추들의 자제가 당라되었다. 이들은 또 원에서 그곳의 관인·문인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문물을 수용하는데 노력하였고, 귀국후에는 대원관계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⁷⁰⁾

그후 1287년(충렬왕 13) 부친상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정헌대부 전법관에서 문한학사 지첨사부사로 복직하였고, 다음해 秋官을 담당하면서 여러 비방이 난무해져 1년간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것은 충렬왕의 측근세력을 통한 독재의 실현으로 대부분의 재추·관료들이 소외되어 가는 과정중에 일어난 일로,⁽⁷¹⁾ 충렬왕의 비호와 후원을 받던 환관·내료 등의 전주권 참여에 전법관서였던 그가 반발한 것이 파직의 원인이 되었다.⁽⁷²⁾ 그러나 곧 정헌대부 판에

(69) 『고려사』 권 29 충렬왕 5년 3월 정사. 「원관포지명」에는 이때 원에 간 弓箭陪를 10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어 『고려사』의 기록과는 그 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익주의 연구에서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이익주 1988 앞의 논문 177쪽 주 74).

(70) 장동익 1992 「麗·元 文人의 交遊」 『국사관논총』 31 국사편찬위원회 228쪽.

(71) 이익주 1988 앞의 논문 185쪽.

(72) 『고려사』 권 30 충렬왕 14년 7월 을미.

빈사사 보문각학사 지지고로 복직하였다.

1290년(충렬왕 16) 합단적이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에 고려군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원의 지원 역시 미미하여 전세가 고려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조정의 중론은 江華로 피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⁷³⁾ 이때 그는 關京留守萬戶에 임명되어 개경에 남아 합단적의 침입에 맞섰으며, 이들이 물러간 후에는 개경의 城關과 閭舍를 지키는 공으로 版圖判書를 제수하였다.⁽⁷⁴⁾ 또 1293년(충렬왕 19) 겨울 원에서 일본 정벌을 준비하면서 원의 세조가 조서를 내려 고려로 하여금 이를 위한 戰艦을 조성하도록 하자 충렬왕은 관리를 여러 곳에 파견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였다.⁽⁷⁵⁾ 이 때 그 역시 서해도지휘사가 되어 전함 준비에 진력하므로써 수일만에 60여척의 전함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곧 원의 일본 정벌계획이 중단되자 그 배들을 官船으로 편입되어 조세를 거두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1294년 봉의대부 삼사사 문한학사 승지를 제수하였고, 1296년에는 밀직학사를 지낸 후 여러 자리를 거쳐 지밀직사사 판도판서에 이르렀다.⁽⁷⁶⁾ 그러나 이때 동지밀직사사로 있던 등생 卿⁽⁷⁷⁾이 충렬왕비 계국대장공주의 거령구인 印侯가 宰輔에 올라 권세를 잡자 이에 의탁하기 위해 아들 善長을 인후의 딸과 혼인시켜 말썽이 일어나자⁽⁷⁸⁾ 그 역시 이에 연루되어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며 단지 거문고와 독서로써만 소일하였다고

(73) 합단적이 고려를 침략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 30 충렬왕 15·17년 기록 참조.

(74) 한편 이때 그와는 다른 得正 계열의 卞甲은 鄉貢進士로서 원주에서 합단적과 싸워 승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 30 충렬왕 17년 정월 갑인). 이로 볼 때 그가 속해 있던 禮 계열은 일찍부터 관인을 배출하여 개경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반면, 得正 계열은 원주에서 세거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75) 『고려사』에서 이때 都指揮使 判密直 金之淑을 충청도에, 知密直 崔有滄을 전라도에, 都僉議參理 金暉을 경상도에 파견하여 배와 근량을 갖추게 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 30 충렬왕 19년 8월).

(76) 『고려사』 권 31 충렬왕 24년 11월 경술 및 『고려사절요』 권 22 충렬왕 24년 11월.

(77) 원정은 충렬왕의 측근세력에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던 鷹坊에 소속되어 권력을 행사하였고, 충선왕이 집권해서는 그 지지세력으로 편입되었다(『고려사』 권 124 열전 27 폐행 2 元卿).

(78) 위와 같음.

한다.

이후 1307년(충렬왕 33) 충선왕이 재집권할 때까지 그의 권력은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충렬왕과 충선왕을 두고 서르 반응을 달리하던 관료 및 권문세족들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원주원씨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렬왕의 측근세력과 타협을 통해 가문의 신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295년 충선왕이 재추·관료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를 대행하며 부왕의 측근세력을 숙청하자 원주원씨의 珮·卿 등은 충선왕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때 그가 충선왕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른 관료였고 전법판서로 있으면서는 충렬왕의 측근세력에 의해 파면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그의 동생 卿이 충선왕과 동서지간의 인척관계에 있었음 등을⁽⁷⁹⁾ 고려할 때, 그 역시 충선왕이 집권하자 이를 지지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충선왕의 집권이 충렬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대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렬왕 측근세력의 숙청작업은 출발부터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또 충선왕과 충렬왕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충선왕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충렬왕의 측근세력보다도 제휴를 모색하였고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충선왕의 지지세력으로 흡수될 수 있었다. 이에 충선왕의 지지세력이 충렬왕의 측근정치 아래에서 소외되어 있던 재추·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충렬왕 측근세력의 일부가 흡수되었고,⁽⁸⁰⁾ 그의 동생 珮와 卿은 그중 하나였다.

1298년(충렬왕 24) 8월 충렬왕의 복위와 함께 정치세력은 다시 재편되었다. 이에 이전의 측근정치를 복원시키고자 政房과 같은 기구인 別廳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충렬왕 6년 실시하였던 殿試 역시 다시 시행하는 한편, 이전에 충선왕에 의해 배제되었던 宋珮·韓希愈 등을 다시 기용하고 충선왕에게 협조하였던 朴奎之·李瑱 등을 파직 혹은 致任하였다.⁽⁸¹⁾ 따라서 충렬왕의 복위는 충선왕을 지지했던 세력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고 충선왕 지지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으킨 韓希愈의 무고사건은 그 단적

(79) 「원충묘지명」 참조.

(80)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익주 1993 의의 논문 102-103쪽 참조.

(81) 이익주 1993 앞의 논문 121-125쪽.

인 예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 사건의 주모자가 한때 충열왕의 측근세력이었다가 충선왕의 지지세력으로 돌아선 印侯·元卿 등이라는 점이다. 즉 충열왕 측근세력이었다가 충선왕 지지세력으로 돌아선 이들은 충열왕의 복위에 큰 불안을 느껴 이러한 무고사건을 일으켰으며,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충선왕의 지지세력에 대한 충열왕의 반격으로 그의 동생 卿은 원에 붙잡혀가고⁽⁸²⁾ 곧 이어 珩와 함께 파직되었다.⁽⁸³⁾

충열왕과 충선왕을 둘러싼 이러한 정치세력의 제편은 그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가 1298년(충열왕 24) 동생 卿의 婚媵에 연루되어 관직에서 물러난 후 1307년(충열왕 33)까지 약 10여년간 등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생 珩·卿 등을 비롯한 원주원씨가 충선왕의 집권 직후 그 지지세력으로 돌아선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⁴⁾ 이에 1307년(충열왕 33) 충선왕이 다시 집권하자 그는 광정대부 도침의시랑 찬성사 상의도침의사로 복직하였고,⁽⁸⁵⁾ 충선왕이 즉위하자 竈巨의 대표로 왕을 위해 열린 壽寧宮에서의 연회를 주도하기도 하였다.⁽⁸⁶⁾ 이후 그는 첨의중호 민부전서를 개수하여 典儀 등에 대한 일을 관장하고 1309년(충선왕 1)에는 밀직사사가 되어⁽⁸⁷⁾ 민부전서를 겸하였으나, 곧 물러나 광정대부 첨의찬성사 진현관대제학 부총부사로 치사하였다.⁽⁸⁸⁾ 이상이 그의 관직에서의 행력이다.

다음은 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관의 불교에 대한 행

(82) 『고려사』 권 31 충열왕 25년 4월 기미.

(83) 『고려사』 권 31 충열왕 25년 5월 병술.

(84) 한편 1300년(충열왕 26) 원 황제는 황태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연회에서 충열왕을 참석시킨 가운데 韓希愈의 무고사건으로 체포되어 원에 있던 印侯·金沂 등을 사면하고 있는데(『고려사』 권 31 충열왕 26년 7월 정축), 이것은 충선왕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85) 충선왕은 재집권하면서 충열왕 측근세력을 숙청하고 인후·김혼 등을 저기용하였다. 이때 임용된 사람은 『고려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약 8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고려사』 권 32 충열왕 33년 3월 신묘), 원관 역시 이때 복직된 듯 하다.

(86) 『고려사』 권 33 충선왕 즉위년 10월 갑신 및 『고려사절요』 권 23 충열왕 34년 10월.

(87) 『고려사』 권 33 충선왕 원년 4월 신미 및 『고려사절요』 권 23 충선왕 원년 4월.

(88) 그가 치사한 이유에 대해 묘지명에는 벼슬이 높아져 시류에 어긋날 것을 두려워하였고, 충선왕도 그 뜻을 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력은 관력 초기인 1265년(원종 6) 寫經院判官을 역임하고 있음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사경은 불교신앙의 한 형태로 원에 사경 기술을 전수할 만큼 널리 유행하였고, 고려에서 국왕 및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사경은 일종의 공덕신앙 형태를 보이며 유포되었다.⁽⁸⁹⁾ 그가 관력 초기 사경원판관을 역임하였음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국왕과 고려조정의 사경작업에 관인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1310년(충선왕 2) 모친상을 당한 이후 사찰의 중창에 참여하거나, 대장경을 조성했다는 사실, 그리고 銀字華嚴經三譯을 사경했다는데서 살펴볼 수 있다. 원관은 치사 이후 개경 북쪽에 있던 九龍山의 舍那寺⁽⁹⁰⁾의 중창을 주도하여 1년여만에 완공을 보았는데, 이것은 도친이 죽은 이후 불교에 귀의하여 그 추복을 위해 사찰의 중창을 탈원하였다는 묘지명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적으로 모친의 명복을 위한 것이었다.

사나사의 중창을 주도한 직후 그는 항주 혜인사의 불사에 참여하였다. 慧因寺는 후당 때인 927년 초창된 항주의 南山에 있는 華嚴敎寺이자 일찍이 義天이 이곳에서 泮水法師의 제자가 되어 수학하던 곳으로 慧因寺가 본래의 이름이었고 高麗寺라고도 불렸던 곳이다.⁽⁹¹⁾ 즉 그는 浙江에서 대장경 1부를 조성

(89) 원 간섭기 고려에서는 원의 요청에 의해 수백명의 寫經僧을 파견하고, 고려에서는 사경 작업이 점차 호화스러워져 국가재정의 궁핍과 신앙의 세속화 현상을 초래하였다(채상식 1996 「원의 정치간섭과 불교」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92-96쪽).

(90) 구룡산은 鹿景의 사당이 있는 聖居山을 가르키는 것으로 짐작된다(『여지도서』 補遺 松都 산천). 사나사에 대해서는 고려 건국 직후 대조가 창건하였다는 10개의 사찰중에 그 이름이 보이며, 충열왕 5년 왕이 행차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 29 충열왕 5년 4월 갑진).

(91) 『慧因寺志』(杜潔祥 主編 1980 『中國佛教史志彙刊』 第1輯 20冊 明文書局印行) 권 1 原始. 즉 의천은 이곳에서 泮水法師에게 일년여 동안 가르침을 받고 귀국한 후 靑紙金書泮譯華嚴經 300부와 이 경전을 보관할 장경각 건립을 위한 비용인 금 2000냥을 희사하였다고 하며, 이로 인해 세상에서 '高麗寺'라고도 불렀다고 한다(위의와 같음). 또 『혜인사지』에 의하면, 의천은 「祖德」편에 올라 있는(『혜인사지』 권 3 祖德) 한편, 사찰내의 高麗王祠는 사당에는 그의 像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같은 책 권 5 宮宇). 또 고려인으로 문종과 원관, 충선왕 등이 혜인사의 檀越로 기록되어 있다(같은 책 권 4 檀越).

하여 杭州의 惠因寺에 봉안하는 수년간의 작업에 자신의 田藏과 白粳를 買納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고, 이를 청송하는 비석이 江南에 세워져 道俗에게 詠歌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혜인사지』에서 그가 이곳에 대장경을 봉안하고 田藏 등을 희사한 것과 관련하여 「捨大藏經記」와 「置田碑」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⁹²⁾ 이와 같이 그가 혜인사에서 佛事를 하게 된 동기는 이곳이 대각국사가 수학하던 곳이라는 점이 우선 주목되었고,⁽⁹³⁾ 또 그가 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직전인 1312년(충선왕 4) 충선왕이 咨議參軍 洪淪⁽⁹⁴⁾·대호군 蔣得渲·親從護軍 林宣⁽⁹⁵⁾·中軍將 金完之·낭장 吳仲景 등을 보내 佛事に 참여하고 있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⁹⁶⁾ 특히 「捨大藏經記」에는 그의 대장경 봉안이 일찍이 安珣(1243-1306)과 뜻을 함께 하였으나 갑작스런 안향의 죽음으로 혼자 한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⁹⁷⁾ 이때 혜인사에 대한 관심이 그 개인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그는 1316년(충숙왕 3) 70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銀字華嚴經三譯 1부를 사경한 후, 이때 얻은 병으로 그해 여름 죽었다. 이러한 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모두 모친의 명복과 자신의 공덕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특히 그의 죽음 원인이 화엄경삼역을 사경하다가 얻은 병에 있었음은

(92) 『혜인사지』 권 6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 및 권 7 「高麗國相元公置田碑」. 「捨大藏經記」는 書者가 金尙으로 밝혀져 있고 撰者의 경우는 姓만 閔氏로 기록하고 이름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찬자의 관직명과 記文의 내용중에 찬자가 元權과 同榜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묘지명을 지은 閔漬가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置田碑」는 「捨大藏經記」와 같은 해인 1314년(충숙왕 1) 혜인사의 승려 慧福이 지었다(자료 I·II 참조).

(93) 『혜인사지』 권 6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 참조.

(94) 洪淪은 1314년(충숙왕 1) 判典校寺事로 太子府參軍을 겸직하여 南京에 있다가 經籍 10800권을 구입한 바 있고(『고려사절요』 권 24 충숙왕 원년 6월), 원 황제에게 宋의 秘閣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 4371책 17000권을 하사하도록 주청하기도 하였다(『고려사』 권 34 충숙왕 원년 7월 갑인). 관직은 밀직·찬성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1321년(충숙왕 8)에는 황제의 명으로 고려에 와서 藏經紙를 구하였다(같은 책 권 35 충숙왕 8년 5월 갑오).

(95) 林宣에 대해서는 충열왕 때 征東行省의 郎將으로 賀正하기 위해 원에 다녀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 32 충열왕 27년 11월 무오).

(96) 『혜인사지』 권 7 「高麗國相元公置田碑」 참조.

(97) 『혜인사지』 권 6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 참조.

그가 이 작업에 닳은 심혈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상이 그의 행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다음의 그의 후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세 번 혼인하여 3남4녀를 두었다. 첫 번째 부인은 지침의부사 관심사사를 지낸 洪祿迥의⁽⁹⁸⁾ 딸이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고 두 번째 부인은 전리판서로 치사한 郭汝弼의⁽⁹⁹⁾ 딸이었는데 이 역시 그보다 먼저 죽었다. 셋째와 사이에서는 1남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冠禮 이전에 죽었으며 딸은 침의중찬 金方慶의 손자이자 부지밀직사사 金愷의 아들인 密直使 金承用에게⁽¹⁰⁰⁾ 출가하였다. 또 세 번째 부인은 평장사 金台瑞의 손자이자 추밀부사 金慶孫의 아들인 좌승지 金信의⁽¹⁰¹⁾ 딸이었으며, 여기서서 2남3녀를 낳았다.

이중 장남은 忠으로⁽¹⁰²⁾ 정동행중서성 도진구사사를 지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둘째는 원관보다도 먼저 죽었다. 장녀는 西京等處萬戶府副萬戶를 지낸 朴居實에게⁽¹⁰³⁾ 출가하였고, 둘째는 침의찬성사를 지낸 閔宗儒의 아들이자 兪

- (98) 홍낙주는 개령인으로 평장사 鈞의 아들이며 벼슬은 침의부사에 이르렀다. 그의 사위로는 원관은 물론 원경이 확인됨에 당시 원주원씨와 개령홍씨는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9) 관여필은 원 간섭기 초기인 원종 때부터 충렬왕 6년 파면되기까지 무려 8차례나 원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그는 또 1279년(충렬왕 5) 贊成事 朴恒과 함께 전법판서로 동지공거를 맡아 과거를 주관하여 趙簡 등 33인과 明經 2인·恩賜 8인을 급제시키기도 하였다(『고려사』 권 73 지 27 선거 2 충렬왕 5년 6월).
- (100) 김승용은 독립된 묘지명이 전한다(『金承用墓誌銘』 김용선 편저 앞의 책 464-466쪽). 이어 의하권, 그는 본관이 만동으로 1290년(충렬왕 16) 정당문학 鄭可臣과 판티서사 金暉이 주관한 과거에 급제하였다. 원관의 둘째딸은 그의 先娶로 2남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西部副令 金厚수와 郎將 金次이며 딸은 開城判官 柳之演에게 출가하였다. 묘지를 지을 때 관직은 관군단호 상군제주였다.
- (101) 金信은 본관이 경주도 벼슬은 밀직승지에 이르렀다(『박거실처원씨묘지명』 김용선 편저 앞의 책 481-482쪽 및 『원충묘지명』 같은 책 495-497쪽).
- (102) 원충은 독립된 묘지명과 傳이 전한다(『원충묘지명』 및 『고려사』 권 107 열전 20 元傅 附 忠).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문음으로 관직에 나갔으며 남양부원군 洪奎의 딸과 혼인하여 충선왕(德妃)과 동서지간이 되었고, 3남5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前興威衛護軍 顯과 備巡衛別將 詡, 顯이고, 사위는 親御軍別將 金光利, 前左右衛護軍 洪瑜, 管高麗軍萬戶 羅英傑, 王尹 王濤 등이다. 묘지를 지을 때 관직은 밀직부사 상호군이였다.
- (103) 박거실의 관력은 西京等處萬戶府副萬戶 中顯大夫 司僕正이 확인된다(『이제현묘지명』 김용선 편저 앞의 책 587-592쪽). 그의 처 원씨는 독립된 묘지명이 전

千遇의 외손인 밀직사 閔頤에게⁽¹⁰⁴⁾ 출가하였으며, 셋째는 철의중찬 金台鉉의 아들이자 整治都監의 判事를 지낸 金光轍에게⁽¹⁰⁵⁾ 출가하였다. 이로 볼 때 원관은 자신이 개령홍씨·청주곽씨·경주김씨 등과 직접적인 혼인관계를 맺고 자녀들 역시 당시의 권문세족이었던 안동김씨·남양홍씨·여흥민씨·광산김씨 등과의 혼인을 통해 가세를 확장하여 고려 후기 권문세족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맺음말

「원관묘지명」은 1670년(현종 11) 묘소가 있던 장단 금동에서 처음 발견됨으로써 알려졌다. 이에 송시열은 이때 발견된 전후 사정을 「묘지발견기」 형태의 기록으로 상세하게 남겨 놓았는데, 이때에도 묘지의 1291자중 약 37자는 이미 판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묘지는 다시 매장되어 전해지지 않다가 1997년 원씨종중의 사초작업중 발견되어 현지에 이르고 있다. 묘지명은 그와 동방인 민지가 1325년(충숙왕 12)에 지었다.

그는 1247년(고종 34) 문하시랑 원부와 예빈□경 염수장의 딸인 봉성군대부인 염씨 사이에서 태어나 충열왕과 충선왕의 즉위와 복위를 거듭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관인이다. 17세 때인 1263년(원종 4) 문음으로 知江華郡判官을

한다(「朴居實妻元氏墓誌銘」 같은 책 481-482쪽). 이에 따르면 그는 2남5녀를 낳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들은 朴禿滿과 朴長命이며 사위는 中政院長史 潘陽 洪義孫, 興威衛郎將 金之庾, 重大匡 樂浪君 王瑋, 宣授王府斷事官 匡端大夫 前政宣文學 李齊賢 등이다. 묘지를 지을 때 관직은 서원수군만호 보승호군이 었다.

(104) 閔頤의 본관은 黃驪로 독립된 묘지명과 傳이 전한다(「閔頤墓誌銘」 김용선 편저 앞의 책 491-495쪽 및 『고려사』 권 108 열전 21 閔宗儒 附 頤). 묘지명에 의하면, 그는 1285년(충열왕 11) 지침의부사 薛公儉과 좌승지 崔守璜이 주관한 과거에 급제하였고 驪興君에 봉해졌다. 원관의 딸은 그의 後娶로 3남3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과거에 급제한 儉와 朴, 그리고 渙이고 딸들은 모두 世家의 아들과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묘지를 지을 때 관직은 동지밀직사사 민부전서였다.

(105) 金光轍의 본관은 광산으로(「金台鉉墓誌銘」 김용선 편저 앞의 책 472-479쪽) 1305년(충열왕 31) 찬성사 鄭瑄와 지신사 宋璘이 주관한 과거에 급제하였고 化平君에 봉해졌다. 묘지를 지을 때 관직은 무사보 지계교였다.

배수하여 처음 관직에 나갔으며, 3년후에는 지공거 洪縉과 동지공거 郭汝益이 주관한 과거에 병과로 급제하여 국학학록을 제수하였다. 이후 그는 관력 초기인 1269년(원종 10)과 1279년(충렬왕 5) 2차례에 걸쳐 원에 다녀왔는데, 첫 번째는 부친 傅가 正朝使로 가는 것을 수행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재추의 자제로서 독로화에 선발되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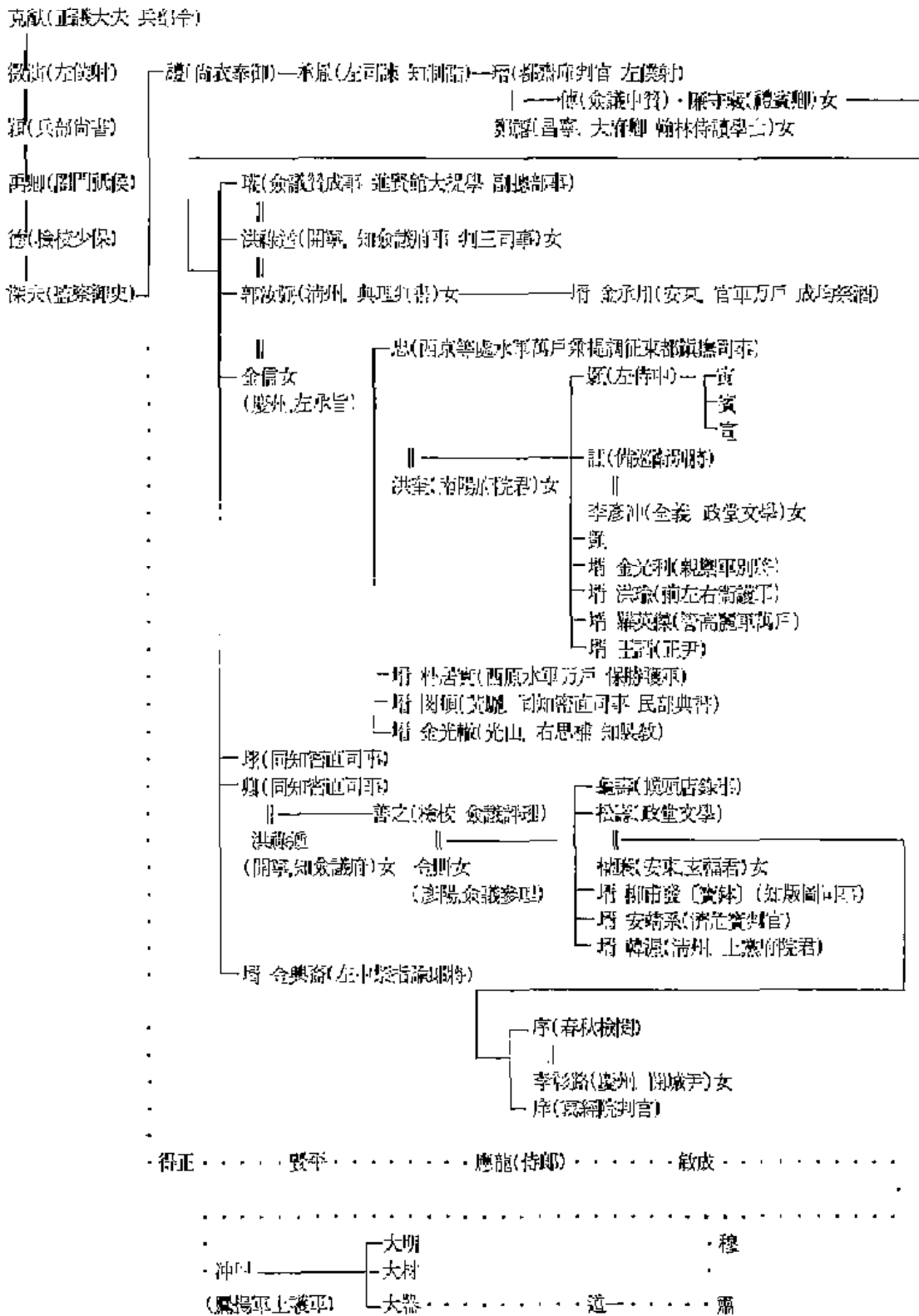
이후 부친상으로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전법판서로 복직하여서는 충렬왕의 측근세력이었던 환관·내료 등이 전주권에 참여하는 것에 반발하여 파직되기도 하였고, 합단적의 침입에는 開京留守萬戶로 임명되어 강화로 옮긴 고려 조정을 대신하여 이들과 맞서기도 하였다. 또 1293년(충렬왕 19) 원의 일본 정벌 준비를 위해서는 서해도지휘사로 전함을 건조하는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하지만 1298년(충렬왕 24) 지밀직사사로 있으면서는 동생 卿이 그 아들 善長을 당시 권세를 부리던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의 거령구인 卮侯의 딸과 혼인시킨 일에 연루되어 다시 파직되어 만년인 1307년(충렬왕 33) 충선왕의 집권으로 복직할 때까지 10여년 동안 관료에 나가지 못했다. 이것은 원을 둘러싼 충렬왕과 충선왕의 왕위 다툼을 사이에서 그를 비롯한 원주원씨가 초기 충렬왕 측근세력과 타협하여 가세를 신장시키다가 이후 충선왕이 집권하자 그 지지세력으로 돌아선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에 1307년(충렬왕 33) 충선왕의 집권하자 찬성사로 복직하여, 곧 첨의중호·밀직사사 등을 제수함으로써 조정을 대표하는 宰臣의 위치에 오르고, 63세인 1309년(충선왕 1) 첨의찬성사로 치사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그는 이듬해 모친의 죽음을 접하고 그 명복을 빌기 위해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고려 태조 때 창건된 유래깊은 구룡산의 사나사를 중창하고, 浙江에서 대장경을 조성하여 義天이 수학하였던 杭州의 惠因寺에 봉안하는 한편, 銀字華嚴經三譯의 사경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모두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316년(충숙왕 3) 70세의 노구로 華嚴經三譯을 사경하다가 얻은 병으로 죽음에 이르렀음은 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깊었음을 엿보게 한다.

한편 원관은 고려후기 원주원씨가 권문세족으로 자리하게 하는데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그가 과거를 통해 지추급의 관료에 오른 것이나 그의

동생 珮와 卿 역시 상당한 지위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후대의 忠과 善之 등 역시 관료에서의 지속적인 승진을 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반 구축은 그를 비롯한 당대 및 후대의 혼인관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외가가 서원염씨이고, 처가가 개령홍씨·청주곽씨·경주김씨 등이며, 자녀들이 혼인을 하고 있는 안동김씨·남양홍씨·황려민씨·광산김씨 등 역시 모두 당대의 권문세족이었다는 점은 그가 혼인관계를 통한 가세의 신장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丑〉 1. 고려시대 온주원씨 가계도⁽¹⁰⁶⁾



(106) 이 세계도는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원부묘지명」·「원관묘지명」·「원선지묘지명」·「원충묘지명」 등의 금석문, 그리고 「죽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중 一은 史書 및 묘지명 등 고려시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며, . . .은 「죽보」를 참조하였다. 「죽보」에 보이는 得正 계열의 관직은 취하지 않았다.

〈표〉 2. 元瓘의 行歷

| 연 대 | 나이 | 행 령 | 비 고 |
|--------------|-----|-----------------------------------------------|---------------------------|
| 1247년(고종34) | | · 출생 | 父-門下侍郎 元傳 母-禮賓口卿 康守藏女 |
| 1263년(원종4) | 17세 | · 知江華郡判官 | 門蔭 |
| 1265년(원종6) | 19세 | · 寫經院判官 | |
| 1266년(원종7) | 20세 | · 과거 급제(병과). · 국학학록 · 海口府錄事 | |
| 1269년(원종10) | 23세 | · 掖庭內侍官 · 行宮班班을 兼하고 부친 正朔使 元傳와 함께 왕의 元行 扈駕 | |
| 1270년(원종11) | 24세 | · 詹事府丞 | 이후 監察御史 · 太傅少尹 · 淸州牧副使 역임 |
| 1279년(충렬왕5) | 33세 | · 朝議大夫 秘書尹 世子中允으로 弓箭營의 副首가 되어 원에 입시 | 金沂 등 총 25인으로 구성 |
| 1287년(충렬왕13) | 41세 | · 투친상, · 王獻大夫 典法判書 文翰學士 知詹事府事으로 복직 | |
| 1288년(충렬왕14) | 42세 | · 秋宮으로 비방을 당해 사직 | |
| 1289년(충렬왕15) | 43세 | · 王獻大夫 判禮賓寺事 寶文閣學士 知制誥로 복직 | |
| 1290년(충렬왕15) | 44세 | · 閔京留守萬戶 | 승丹賊 친입 |
| 1292년(충렬왕18) | 46세 | · 版圖判書 | |
| 1293년(충렬왕19) | 47세 | · 西海道指揮使 | 원의 일본 정벌을 위해 전함 제작 |
| 1294년(충렬왕20) | 48세 | · 奉詔大夫 三司府 文翰學士 承旨 | |
| 1295년(충렬왕21) | 49세 | · 瓘으로 개명 | 원의 元貞으로 개원 |
| 1296년(충렬왕22) | 50세 | · 密直學士 | |
| 1298년(충렬왕24) | 52세 | · 知密直司事 版圖判書 | 동생 卬의 婚媾에 연루되어 파직 |
| 1307년(충렬왕33) | 61세 | · 匡靖大夫 都僉議侍郎 贊成事 尚議都僉議事 | |
| 1308년(충렬왕34) | 62세 | · 僉議中議 民部典書 | 10월 수령궁에서 충선 왕과 元호 |
| 1309년(충선왕1) | 63세 | · 密直司事 民部典書, · 匡靖大夫 僉議贊成事 進賢館大提學 副揔部事로 致仕 | |
| 1310년(충선왕2) | 64세 | · 모친상, · 개경 九龍山 舍那寺 중창 | |
| 1314년(충숙왕1) | 68세 | · 浙江에서 대장경을 조성하여 杭州 惠因寺에 봉안 |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 참조 |
| 1316년(충숙왕3) | 70세 | · 銀字華嚴經三譯 사경, · 6월 사망 | 장단현 금동에 장례 |

자료 I.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¹⁰⁷⁾

翰林院直學士朝列大夫本國重大匡守僉議政丞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選部事
致仕閔□□撰

重大匡上洛君金恂書并題

夫以實際而觀則廓然空寂無名無相本無衆生亦無諸佛豈有生滅苦樂在於其間哉然諸有情背真逐妄自有生死去來故罪福由是而生苦樂從斯而出罪福既生復有輕重苦樂隨出亦如形影於是地獄餓鬼畜生修羅人天諸趣紛然而作是所謂衆生也苦莫苦於地獄樂莫樂於天堂然天報將盡亦有五衰之苦而又隨業墮落則亦未免於三途故天堂之樂不足恃也於中有一聰慧之人因於衆生而起大悲因於大悲而生菩提心因菩提心成等正覺是所謂佛也佛以平等大悲視衆生如一子然諸衆生根器不同非一法可度故欲隨其根將適其器而遂有三乘十二分教八萬四千法藏如世良醫救諸病用藥至千設方至萬非苟多其藥而廣其方也藥隨病異故不得不然耳是以我佛釋迦成正覺轉法輪始自鹿苑至於雙樹七七年間所說法門不爲不多矣及乎一千年後其教東漸自漢明夢見金容已來西竺梵本之來譯東夏者無慮五千餘卷經律皆佛口所宣論則皆諸菩薩所造如易之十翼春秋之三傳者也略舉諸經所有功德則或有但聞其名及一句義者猶勝純以七寶積滿三千大千世界以用布施又復分別半偈者亦勝教百恒河沙衆生得阿羅漢果於中密教則有影過風經之益或有一字之功能令滅罪成佛戒律則一日之功亦能生佛淨土然則苟能成一卷經聞一句義依一字功修一日戒亦足爲千生萬劫難得之福慶也況復成一大藏趁年披轉者豈不萬萬於前功哉然此須有大財力者能之而世之富貴者例皆聚不厭多滿不知足急於求利息於爲善及乎四山既合五家爭奪然後無如之何假使得如汾陽終始何益於身後哉在當世獨得超然世外之明見者惟我退翁元相公有焉公生閔閔而蚤收科第敷歷清華而驟登卿相當其急流思老咄之知止深信勝緣慕靈運之在家曾與故僉議中贊安公同誠立願印造大藏經一部俾安於四明之天童禪刹猶以爲歉今復度其功費而竭盡財力印成全藏一部奉安大覺國師所起道場以爲地勝人高而法寶雖具若不披轉於歲時而與其福利則與夫多買良田遠求好種而不解耕穫

(107) 『혜인사지』 권 6 碑記.

者何異哉於是又備趁年轉藏之資并以捨施善哉未曾有也其所願則皇帝聖壽萬萬歲皇太后億載萬年藩王國王各增椿算先公先妣超躡寶蓮四生六道一切有情咸蒙饒潤同至菩提耳大哉心乎所成大法寶藏宜安於此而捨之於彼者以無自他彼此之殊也所作最勝功緣先奉君親者始終不離忠孝之道也由斯而往則雖欲後於自利福祿其不先於公乎推其餘以及千孫尚有餘慶矣以予爲蚤年同榜辱知蚤厚且親請以爲記予以老病固辭請之不已不獲已而竊敘其所見知耳

元祐⁽¹⁰⁸⁾元年二月日

功德主大匡僉議贊成事判摠部事致仕元瓘性海慈照明宗大師華嚴宗主杭州路高麗惠因教寺持僧慧福立石

자료 II. 高麗國相元公置田碑⁽¹⁰⁹⁾

宋元豐初年晉水法師主惠因華嚴講席夙通三觀妙義圓音溥暢自五季以來類綱墮緒迨是復振學者歸仰風聞四方越八年高麗僧統義天本以王子捨位克志大法航海而來受教塵下即達其道嗣王法延醫歸本國號大覺國師化行兩地越十七年國母施白金於寺宮構傑閣奉安三譯華嚴經典莊嚴廬舍那佛洎普賢文殊像設金碧璀璨瞻仰一新以故名其寺曰高麗以慧因爲大覺道場迨二百年矣輪雲相代稟弛因之今太尉濟王益紹先志皇慶元年冬遣使咨議參軍洪淪大護軍蔣得道親從護軍林宣中軍將金完之郎將吳仲景等齎藻完繕靡飾□庸百費具舉且以疏徵慧福承乏茲席仍施經律金藏卷帙襲置閣上晨夕薰崇今二年春相國退翁元公走价李孝道高口才齋施來杭督印經典一藏盛以緜函置于寶輪藏中復市負郭良田歸于常住永充僧飯僧之供歲爲轉誦則法食兩施備矣惟如來以佛法付國王大臣正欲維持教法流布後世與天地相爲長久今功德主藩王主于上退翁元相成于下不負如來付囑初意尊君敬法誠所未有懼無以垂不朽故書其顛末於碑陰云

延祐元年三月 日住山慧福識

(108) '延祐'의 誤記로 1314년(충숙왕 1)이다.

(109) 『해인사지』 권 7 碑記.

一置捨到田土百頃

一段四十畝坐落嘉興路嘉興縣永安鄉三十八都地字圍民田置到沈提舉田

一段一十畝坐落嘉興路嘉興縣遷善鄉三十五都東埠鉗字圍民田置到沈一官田

(필자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원)